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3.(월) 15:00
(지 면) 2026. 11. 24.(화) 조간

행안부-KT 손잡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에 AI 접목, 지역문제 함께 푼다

- 행안부-KT, 23일(월) 사회연대경제 인공지능 전환(AX)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민관협력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 춘천 원도심 활성화, 청도 통합돌봄부터 협력…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 확산

행정안전부와 KT가 손잡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 해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회사 KT(대표이사 박윤영)와 '사회연대경제 AX*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방식과 서비스, 조직 운영을 혁신하는 것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에 KT의 인공지능(AI) 기술과 교육 역량을 더해,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 9월「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민간기업의 기술과 전문성을 지역 현장에 연결해 사회연대경제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역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 민관협력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 지역문제 해결부터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민관협력 인공지능 전환(AX)까지 3대 분야 협력

먼저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분야에서는 주민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발굴한 지역 현안에 KT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전문 인력을 연계해 해결사례를 만들고, 현장 실증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또한 지역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 교육청과 함께 청년을 지역문제 해결형 인공지능(AI) 인재로 키우고, KT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인공지능(AI) 교육 기회를 넓힌다.

아울러 민관협력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지원 조직의 업무를 진단하고, 맞춤형 인공지능 전환(AX) 상담과 인공지능(AI) 해법을 지원해 민관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춘천, 청도에서 시범 추진 후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 확산

2026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지방정부 가운데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강원 춘천시, 경북 청도군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인과 청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점포 운영과 홍보를 개선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청도군은 흩어진 돌봄 정보를 연계하고 방문 기록을 AI로 자동화하는 통합돌봄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사업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KT의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 지원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닿도록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협력사례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책임자	과 장	염성욱	(044-205-3211)
		담당자	사무관	김원한	(044-205-3213)
			사무관	강동현	(044-205-32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